

길을 떠나 ‘문학의 바다’에 풍덩 빠지다

가을,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가을은 감성이 풍부한 계절인 만큼 책 한 권 배낭에 넣고 소설가, 아동문학가, 시인 등의 흔적을 밟아가는 문학기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다. 작가들의 숨결을 추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 본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통영

자다가도 달려가고 싶은 藝鄉

박경리,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이 태어나 자란 경남 통영은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동양의 나폴리'로 불린다. 발길 닿는 곳마다 문인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기념관과 생가, 시비와 동상, 작품의 무대를 만나게 된다.



통영의 미륵도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미륵산(彌勒山). 정상에는 '미륵산 461m'라는 대리석 표지석이 있는데, 이 일대는 사방으로 시야가 넓게 터져 한려해상의 진수를 조망할 수 있다.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통영항과 한산도·비진도·소매물도·추도 등 한려수도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좋을 때는 지리산 천왕봉과 여수 돌산도, 일본 대마도까지 다 보인다고 한다.

점점이 떠 있는 섬과 그림 같은 해안선, 은빛 물결이 때를 지어 태양을 반사하는 푸른 바다와 떼 지어 항구로 들어오는 어선들은 한 폭의 동양화다. 바다와 산과 하늘이 어우러진 절경에 말을 잊지 못한다. 노을이 지면 바다와 섬들이 보석 같은 풍경을 빛내는데 그 아름다움에 흠뻑 반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 정지용은 통영 기행문을 통해 "통영과 한산도 일대의 풍

경, 자연미를 나는 문필로 묘사할 능력이 없다"고 했듯이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이 사람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출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바로 아래 당포해전 전망대가 있고, 그 옆에는 '박경리 묘소 전망 쉼터'가 있다. 박경리의 시비 '마음'이 세워져 있는 이곳에서는 작가의 묘소와 기념관이 아스라이 보인다. 미륵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부근에 내려 나무 데크를 오르거나 미래사나 용화사를 들머리로 해 산길과 나무 데크를 오르면 된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

들은 '조선의 나폴리'라고 한다. 그러니만큼 바닷빛은 맑고 푸르다. 남해안 일대에 있어서 남해도와 쌍벽인 거제도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해탄의 거센 파도가 우회하므로 항만은 잔잔하고 사철은 온화하여 매우 살기 좋은 곳이다. 통영 주변에는 무수한 섬들이 위성처럼 산재한다. 북쪽에 두루미목만큼 좁은 육로를 빼면 통영 역시 섬과 별다름이 없이 사면이 바다다. 벼랑가에 얼미쫘 포전(浦田)이 있고, 언덕배기에 대부분의 집이 송이버섯처럼 들쭈는 지세는 빈약하다" -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제1장 '통영' 중에서 통영시 문화동 간창골이 주 무대인 '김약국의 딸들'을 비롯해 '토지' '파시' 같은 소설에서도 통영을 끊임없이 등장시켰던 박경리(1926~2008)에게 통영의 풍광과 함께 살아느릴로 생계를 꾸려갔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문학적 토양이 됐다.



박경리기념관 내 강원도 원주의 서재를 재현해 놓은 모습

1955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단편 '계산'과 1956년 단편 '흑흑 백백'을 현대문학에 발표했고, 소설 '김약국의 딸들'로 작가 입지를 굳혔다. 이어 한국 현대 문학이 거둔 최고의 수확이자 하나의 극점으로 평가받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해 26년 만에 탈고했다.

박경리는 30대 초 상처를 입고 통영을 떠났고, 2004년 11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통영을 찾았고, 2008년 바다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미륵도 언덕에 묻혔다. 묘소 인근에는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옛날의 그 집' 시비가 세워져



1 서피랑(서쪽의 비탈)의 99계단 2 박경리 생가
3 서문고개 초입에 세워진 소설 '김약국의 딸들' 표식
4 담벼락에 쓰인 박경리 문장 5 옛 통영성의 서문인
금숙문이 있었던 서문고개

있다. 고인을 추모하는 박경리공원 바로 아래 박경리 동상과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시실에는 그의 대표작 '토지'의 친필원고와 등장인물 관계도,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주요 무대인 안뒤산을 중심으로 한 통영의 옛 모습을 복원한 모형, 일대기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그래픽이 있다. 쪽진마리와 수수한 한복차림의 젊은 시절 사진과 어록, 작가가 직접 만든 누비저고리 옷, 평소 집필하던 원주의 서재를 재현해 놓은 방도 전시돼 작가의 삶과 흔적, 문학세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글을 '한땀 한땀 기워 나간 바느질 흔적'이라 여겼던 고인을 뒤로하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던 김춘수(1922~2004)를 만나러 간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김춘수 유품전시관에는 육필원고, 필기구, 안경, 시계, 도장, 옷가지 등이 전시돼 있다. 지우고 또 지우면서 쓴 습작노트에서 시인의 고뇌와 숨결이 느껴진다. 특히 시인이 생전에 기거하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침대와 10폭 산수화 병풍, 액자 등을 넣어 꾸민 '김춘수 방'에서는 시인의 일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전시된 사진 중 눈에 띄는 것은 1945년 결성된 통영문화협회

를 이끌었던 인물 사진이다. 해방되자마자 일제 잔재를 걷어내는 피렌체식 문예부흥을 도모했던 유치환과 윤이상, 김춘수, 시조시인 김상옥, 작곡가 정윤주, 화가 전혁림과 김용주 등이 미륵도에서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유치환 부부의 결혼 때 화동(花童)을 했던 김춘수는 통영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47년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출간한 이후 82세로 타계할 때까지 '무의미의 시'라는 새로운 시론을 비롯해 20권이 넘는 시집을 출간했다.

소설 '김약국의 딸들' 주 무대 서피랑

김춘수 유품전시관에서 통영대교를 넘으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구나.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던 유치환(1908~1967)의 청마거리를 만난다. 유치환이 젊은 시절 여류 시인 이영도에게 수백 통의 연서(戀書)를 썼던 통영중앙우체국과 '행복'이 새겨진 시비를 거쳐 100m 정도 걸다보면 시조시인 김상옥(1920~2004)의 호를 따라 지어진 초정거리와 마주친다. 통영의 명동으로 불렸던 항남 1번가, 오행당 골목 입구부터 보경유리상회까지 180m 구간에는 시인의 생가터와 표지석, '봉선화'가 새겨진 벽면과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초정의 좌상 등을 만난다.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1 한국 시조를 한 단계 높인 시조시인 김상옥 좌상
 2 초정거리의 김상옥 생가터
 3, 4 '꽃의 시인' 김춘수 유품전시관에는 '김춘수 방'을 비롯해 육필원고,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5 남망산의 청마 유치환의 시비
 6 청마문학관에서는 유치환의 생애와 작품세계, 발자취를 둘러보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고 읊었던 시조시인은 15세 때 금융조합연합회 신문 공모에 동시 '제비'가 당선된 후 시조집 '초적' '목석의 노래' 등을 펴냈다. 일제강점기 수차례 투옥되기도 한 시조시인은 서예, 전각, 도자기, 서화에서도 일가를 이룬 예술가였다. 한국 시조를 한 단계 높인 초정은 부인이 사망하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슬퍼하다 닷새 후 부인을 따라가는 가슴 시린, 지독한 사랑으로 생을 마감했다. 초정거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로 향하면 99계단과 피아노계단으로 각종 블로그와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피랑(서쪽의 비탈) 입구에 닿는다. 박경리 어록을 길동무 삼아 계단을 오르다 보면 통영항의 풍광과 시원한 바람이 따라온다. 5옥타브까지 낼 수 있는 피아노계단

과 수령 200년이 넘는 후박나무를 지나면 서피랑 꼭대기에 이른다. 조선 수군의 망루였던 서포루에서 바라본 통영항의 풍광은 눈으로 보기도 믿기 어려운 절경을 선사한다. 맞은편 동피랑도 한눈에 들어오는데, 충무공이 지휘한 삼도수군통제영의 세병관을 기준으로 동쪽 벼랑을 동피랑, 서쪽 벼랑을 서피랑이라 부른다. 1950년대 통영항 주변 사진을 보며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색다른 즐거움도 있다. 서포루를 내려서면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 등장하는 서문고개가 나온다. 일명 '서문까꾸막'이라 속칭했는데 고개 초입에는 자필 원고본 그대로 새긴 표석이 세워져 있고, 골목 담벼락에는 박경리의 글귀들이 가득 새겨져 있다. 박경리 생가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 내부는 둘러 볼 수 없다. 박경리가 유년시절을 보낸 서문고개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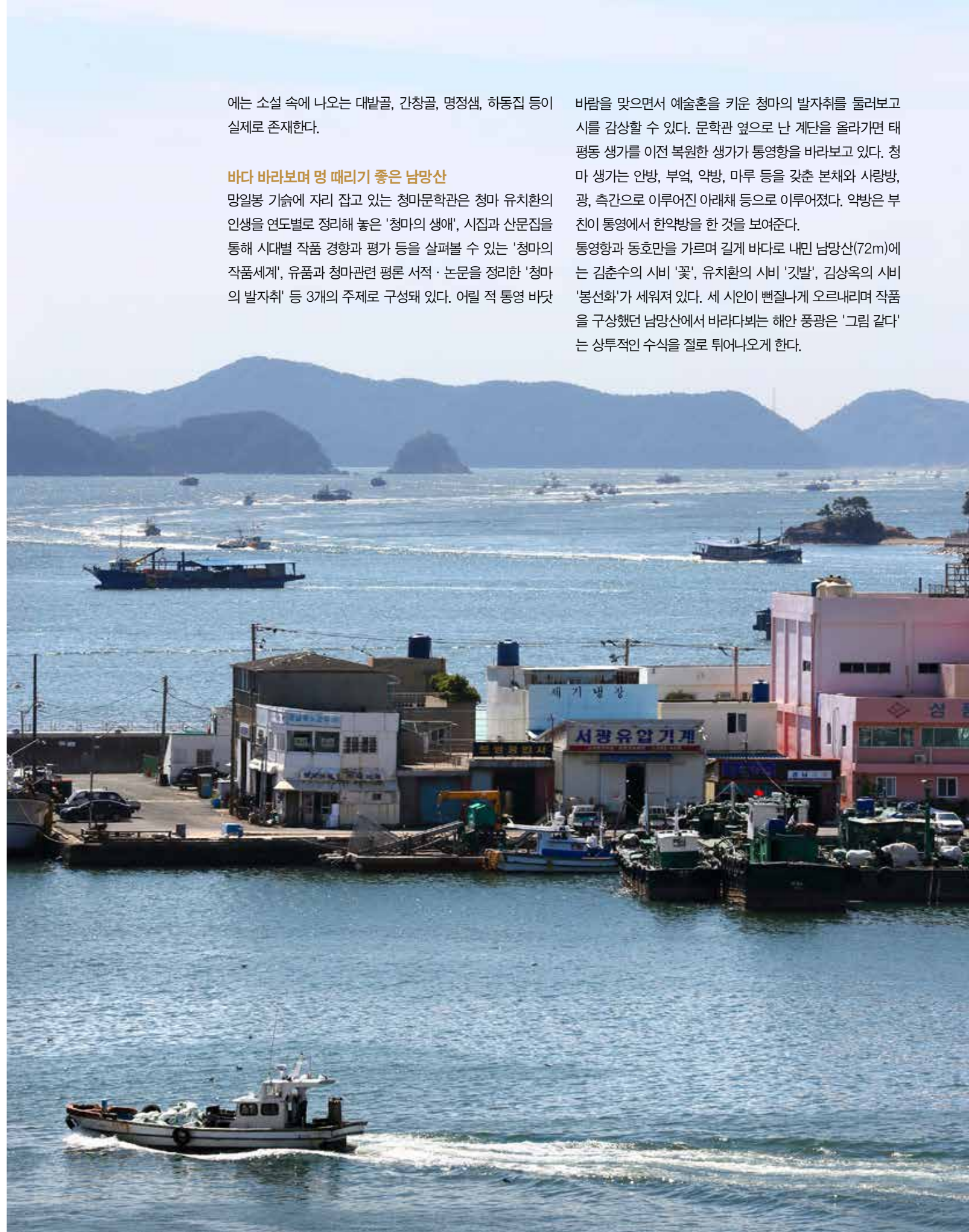


에는 소설 속에 나오는 대밭골, 간창골, 명정샘, 하동집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바다 바라보며 멍 때리기 좋은 남망산

망일봉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청마문학관은 청마 유치환의 인생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청마의 생애', 시집과 산문집을 통해 시대별 작품 경향과 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마의 작품세계', 유품과 청마관련 평론 서적·논문을 정리한 '청마의 발자취'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어릴 적 통영 비닷

바람을 맞으면서 예술혼을 키운 청마의 발자취를 둘러보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문학관 옆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 태평동 생가를 이전 복원한 생가가 통영항을 바라보고 있다. 청마 생가는 인방, 부엌, 약방, 마루 등을 갖춘 본채와 사랑방, 광, 측간으로 이루어진 아래채 등으로 이루어졌다. 약방은 부친이 통영에서 한약방을 한 것을 보여준다. 통영항과 동호만을 가리며 길게 바다로 내민 남망산(72m)에는 김춘수의 시비 '꽃', 유치환의 시비 '깃발', 김상옥의 시비 '봉선화'가 세워져 있다. 세 시인이 뻗어나가 오르내리며 작품을 구상했던 남망산에서 바라다보는 해안 풍광은 '그림 같다'는 상투적인 수식을 절로 튀어나오게 한다.



별교

대하소설 ‘태백산맥’ 주 무대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읽은 독자들은 소설의 주 무대인 별교를 찾는다. 소설 첫머리에 등장하는 현부자집을 포함해 중도방죽, 홍교, 철교, 별교금웅조합, 보성여관, 태백산맥문학관 등 곳곳에서 '태백산맥'을 재현해낸다.



'태백산맥'은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림달이 서편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 조금씩 깎아..."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적막은 깊고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소리인 듯 멀리 스쳐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무덤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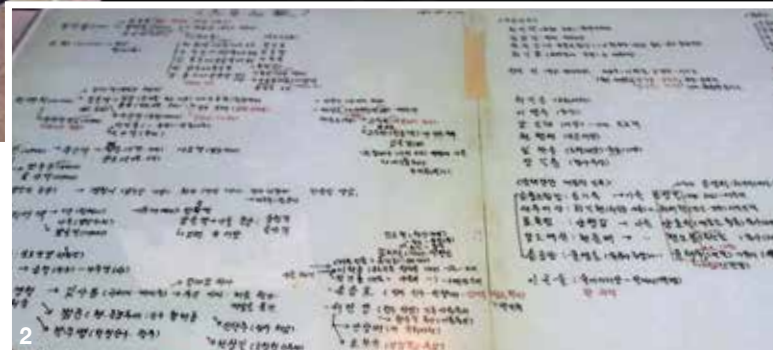
조정래 작가의 필생 역작인 '태백산맥'은 4년간의 자료 조사 후 1983년 집필을 시작해 1986년 10월 '제1부 한(恨)의 모닥불' 1~3권이 출간된 후 1989년 10월 '제4부 전쟁과 분단' 8~10권으로 완간됐다. 분단문학의 새 지평을 연 이 소설은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년 늦가을 별교 포구를 배경으로, 제석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현부자집 제각 부근에서 시작해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기던 1953년 늦은 가을 어느 날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반추한다.

별교를 주 무대로 지식인 염상진과 그를 따르는 하대치, 회의하는 지식인이지만 역사로부터 끊임없는 선택과 실천을 강요당하는 김범우, 우익 청년단 단장 염상구, 새끼무당 소화 등 270여 명이 역어내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씨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베로 짜였다. 지금까지 850만 부 이상 판매되고, 200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다. 김점미 문화관광해설사는 "태백산맥은 조정래 작가가 살던 별교를 소설 속의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펼쳐졌던 장소들이 그대로 남아 문학기행과 현장답사를 하는 답사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봉건적 모순이 어떻게 좌·우익 이념 대립으로 확산됐는지 걸쭉한 육담과 전라도 방언으로 치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 1 경전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놓인 철다리
- 2 소설 '태백산맥' 속의 주 무대로 등장했던 현부자집
- 3 별교포구를 가로지르는 다리 중 가장 오래된 홍교
- 4 좌우익의 충살형이 이루어졌던 소화다리





분단문학의 새 지평을 연 '태백산맥'

문학기행의 시발점을 작가 조정래와 소설 '태백산맥'의 모든 것이 전시되고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으로 잡았다. 문학관은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북향으로 지어졌다. 특히 전시실에서 마주 보게 되는 높이 8m, 폭 81m의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은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4만여 개의 자연석 몽돌을 채집하고 하나하나에 민족의 염원을 담아 건식(乾式)공법으로 제작한 웅석벽화(擁石壁畵)로 이 또한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태백산맥'을 집필하는 데 걸린 시간과 노력의 흔적을 발로 뛰며 꼼꼼히 기록한 취재 수첩, 등장인물에 대한 메모, 만년필, 1만 6천600장의 육필원고 등이 증명하는 듯하다. 카메라, 면도기, 손톱깎이, 구둣주걱, 장갑, 취재용 간편복, 지팡이, 한복 정장 등에서는 작가의 체취와 존재가 느껴진다.

문학지 '현대문학'과 '한국문학', 영화 '태백산맥', 프랑스와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태백산맥', 1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설에 대한 이적성 시비 등 작가의 삶과 문학에 대한 다양한 자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다. 필사는 정독 중의 정독이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2층의 필사본 전시관에는 '태백산맥' 전 10권을 원고지나 노트에 모두 베껴 쓴 독자 필사본 23세트가 놓여 있다. 문학관을 나오면 바로 옆에 소설에서 무당의 딸로 나오는 소화의 집과 현부자집이 있다. 한옥과 일본식이 섞인 현부자집은 솥을대문 위에 2층 누각을 얹은 색다른 양식의 건물로 중도 뿔뿔이 내려다보인다. 일본인 지주의 이름을 딴 중도(中島·나카시마)방죽으

1, 2, 3, 4 태백산맥문학관은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육필원고, 취재수첩, 필기도구 등이 전시돼 있다.

5 세계 최대·최초의 야외건식 '웅석벽화'(擁石壁畵) 6 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인 보성여관은 다다미방, 카페, 숙박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로 가면 갈대만 나부낀다. 농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방죽 쌓기에 동원됐는데 소설에서는 "저 방죽에 쌓인 돌덩이 하나하나, 흙 한 삽, 한 삽이 다 가난한 조선사람덜 핏방울이고 한(恨)덩어린다, 정작 배불린 것은 일본놈덜이었으께, 방죽 쓴 사람들 속이 위꺾었소"라고 묘사돼 있다. 별교천을 따라 걸어가면 염상구가 땅벌이라는 갯배 왕초와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나'를 겨루던 철다리가 나온다. '별교 가서 돈 자랑, 주먹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며 우리 민족의 비극과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소화다리로 향한다. 소설에서 "소화다리 아래 갯물레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편하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장허서 더 못보겠구만이라"라고 했듯이 좌우익이 밀고 밀릴 때마다 이 다리 위에서 총살형이 이루어졌다. 몇 걸음 더 가면 별교의 랜드마크인 흥교(보물 제304호)와 마주친다. 이곳에서 골목길을 따라 대지주 김사옹의 집으로 그려지고 있는 김범우의 집을 둘러본 뒤 흥교 다리를 건너 별교금융조합을 찾아가는다. 일제 강

점기에 사용되었던 금고와 직원 전용 출입문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조선 시대 조선통보와 한국 최초의 화폐 등 세계 화폐를 전시하고 있다. 소설에서 금융조합장 송기묵은 돈을 다루는 사람답게 치부에도 능해 은밀하게 고리대금업까지 해가며 탄탄한 재력을 확보하지만 결국 좌익의 손에 죽고 만다. 친일파가 척결되지 못한 이 땅의 비극을 생각하며 걷다 보면 토벌대 숙소였던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인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에 닿는다. 현재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보존·관리하는 보성여관은 전형적인 일본식으로 지어진 2층 건물이다. 1935년 문을 연 보성여관은 문화유산에서의 하룻밤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동, 별교와 보성여관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 벽이 없이 미닫이문만 4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다미방, 카페와 소극장으로 구성돼 있다. 2층의 다다미방 창문으로 별교를 내려다보며 조정래 작가의 말을 되새겨본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권정생 동화나라 '안동' “인세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라”

권정생 동화나라는 '강아지똥'과 '몽실 언니'를 쓴 아동문학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오롯이 품은 곳이다. 빌뱅이 언덕의 오두막집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권정생을 추억하는 공간이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

1969년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은 '강아지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강아지똥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만들레 꽃을 피워내는 데 소중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다.

권정생(1937~2007)은 생전에 "열에 들뜬 몸으로 써 나갔다. 아침에 보리쌀 두 흡을 냄비에 끓여 숟가락으로 세 등분으로 금 그어 놓고 저녁까지 나눠 먹었다. '강아지똥'은 50일간의 고통 끝에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그는 '몽실 언니' '무명저고리와 얹마' '점득이네' '사과나무밭 달님' '오소리네집 꽃밭'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등 100여 편의 주옥같은 동화를 펴냈다.

'몽실 언니'는 해방과 한국전쟁, 극심한 이념 대립 등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은 작은 어린이의 사실적인 기록이면서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감싸 안은 한 인간의 위대한 성장기다. 1984년 초판 출간 이후 2012년 100만 부를 돌파했다.

20대 전후로 얻은 폐결핵과 녹막염, 신장결핵으로 고통받으며 글을 쓴 그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인세 10억원이 든 통장을 남기

고 세상을 떠났다. 인세를 모두 어린이에게 돌려주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은 2014년 폐교였던 일직남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어린이문학관인 '권정생 동화나라'로 꾸몄다. 교실 2개 정도를 이어 붙인 전시실은 출간된 도서와 친필원고, 유언장, 비료부대로 만든 부채·책상·소반·의료기구 등 유품이 전시돼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그가 살던 방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는 '좋은 동화 한 권은 백 번 설교보다 낫다'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과 50일 전 쓴 '유언장 1, 2'는 큰 울림을 남긴다.

"제 예금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베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동화나라에서 5km가량 떨어진 빌뱅이 언덕의 오두막집은 일직교회의 허름한 문간방에서 교회 종지기로 16년을 살다가 1983년 '몽실언니'의 계약금으로 지었다.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인세 수입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교육자이자 아동문학가인 이오덕에게 "이사 온 집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마음대로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생각에 젖을 수 있어요"라는 편지를 보냈다. 📖

아동문학가 권정생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강아지똥' '몽실 언니' 등 생명의 숭고함을 알리는 아름다운 동화를 썼다. 작가의 삶은 고스란히 문학이 됐다.



INFORMATION

10월, 독서에 집중하기에 좋고 문학관 기행을 떠나기에도 좋은 시기다. 작가의 작품세계와 문학의 정취,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진 문학관은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문향(文香)과 문향(文鄉)을 따라 전국 곳곳의 문학관을 찾아 떠나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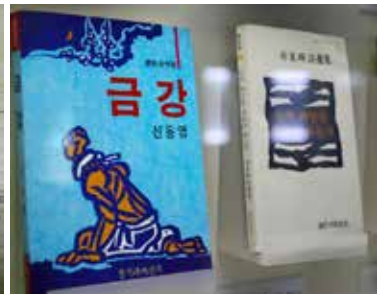
부여



신동엽 문학관

민족시인 신동엽(1930~1969)은 '깁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위선과 허위에 가득 찬 세상을 질타했고, 서사시 '금강'으로 저항의 역사의를 찾았다. 문학관에는 만년필을 힘껏 움켜쥔 시인의 흉상, '깁데기는 가라'와 '금강'의 초고, 육필원고, 부인 인병선 씨와 주고받은 편지, 시인이 읽었던 책 등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빼곡하다. 문학관과 이어진 생가에는 부인 인병선 씨가 쓴 시 '생가'가 걸려 있다.

여는 시간 하절기(4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3월) 09:00~17: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날), 새해 첫날, 설날, 추석



평창



이효석 문학관

한국 현대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받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가산 이효석(1907~1942)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문학관은 '이효석의 생애와 취향' '이효석의 문학세계' '동반자 작가와 구인회' '이효석과 평창' 등으로 구성된다. 유품과 초간본, 작품이 발표된 잡지가 전시돼 있다. 메밀 자료 전시실은 메밀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문학관 인근의 효석문화마을에는 소설 속 주막인 충주집, 물레방앗간이 만들어져 있다.

여는 시간 비수기(10월~4월) 09:00~17:30,
성수기(5월~9월) 09:00~18:30
쉬는 날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새해 첫날, 설날, 추석



영양



[조지훈 문학관]
한양 조씨들이 모여 사는 영양 주실마을 내 위치한 조지훈 문학관에는 청록파시인 조지훈(1920~1968)이 소년 시절 즐겨 읽었던 책을 비롯해 시인이 사용했던 가방과 가족 장갑, 파이프, 안경 등 유품이 전시돼 있다. 문학관 인근에는 조지훈의 생가인 호은종택(壺隱宗宅)이 있다.

여는 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1월) 09:00~17: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날), 새해 첫날, 설날, 추석

서울



[윤동주 문학관]
상수도 가압장을 리모델링한 문학관은 '시인채' (제1전시실), '열린 우물' (제2전시실), '달린 우물' (제3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1전시실은 윤동주(1917~1945)의 시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친필원고 등이 비치돼 있다. 문학관 뒤편에는 '시인의 언덕'이 있다.

여는 시간 09:00~18: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 새해 첫날, 설날, 추석

육천



[정지용 문학관]
지용연보, 지용의 삶과 문학, 지용 문학지도, 사·산문집 초간본 전시 등을 통해 정지용(1902~1950) 시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손으로 느끼는 시' '영상시화' '시낭송 체험실' 등을 통해 '항수' 시인의 문학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여는 시간 09:00~18: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 새해 첫날, 설날, 추석

군산



[채만식 문학관]
금강하굿둑 옆 채만식 문학관에서는 채만식(1902~1950)의 문학 연보와 탁류 초판본, 작품이 쓰인 당시의 군산 모습을 담은 사진, 외투·중절모·육필원고·편지 유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채만식은 200여 편이 넘는 장·단편소설을 남겼다.

여는 시간 하절기(3월~11월) 09:00~18:00,
동절기(12월~2월) 09:00~17: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 새해 첫날

춘천



[김유정 문학촌]
단편소설 '동백꽃'과 '봄봄'의 김유정(1908~1937)을 테마로 꾸민 문화공간이다. 문학촌은 복원된 김유정 생가,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김유정의 이야기집', 천연염색·한복·도자기·민화 체험방 등으로 꾸며졌다.

여는 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30~17: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 새해 첫날, 설날·추석 당일

울산



[오영수 문학관]
단편소설 '갯마을'로 유명한 오영수(1909~1979)는 한국적 정서와 원형적 심상을 단편소설의 미학에 담아낸 소설가다. 전시실에는 '갯마을' '머루' 등 문고판과 습작원고,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시나리오, 필기구 등이 전시돼 있다.

여는 시간 09:00~18: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새해 첫날, 설날